

하나님은 왜 사사기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?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겠다(그 이유가 2장에 나오기 때문) **사사기의 시작을 유다 지파의 자손 갈렙과 웃니엘로 시작한다.** 남은 가나안 정복의 유일한 지파이기 때문이다. 대부분 남은 정복에 실패하고, 때로는 타협하고, 고통 당하며 살았다. 그러나 이들은 정복에 승리한 모델이 되었다. 그들은 **소수였지만 증인들이 되었다.** 예수님도 “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을 가진 자를 보겠나” 했다(눅18:8). 성경은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“남은 자”들이라고 했다(롬11:5)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, 그 축복 속에 있는 이 시대 “남은 자”들이 되기를 축복한다.

**1절에 가나안의 남은 정복을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.**

그때 선택된 지파가 유다지파이다.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이끈 두 사람이 본문의 갈렙과 웃니엘이다.

**이들의 특징이 있다.**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가 난다. 갈렙이 가나안 정복의 1세대라면 웃니엘은 2세대이다.

핵심은 두 사람 모두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분명했다. 그 약속을 붙잡고, 믿음으로 도전하며 선봉에 선 사람들이다.

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일한 사람들이 되고,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린다.

더 중요한 것은 그 후손을 통해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, 그 땅이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땅이 된다(삼하5:3).

하나님이 약속한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이들을 통해 유일성, 재창조의 역사가 만들어졌다(우리의 모델이 되어야)

**1.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팀의 중요성이다.**

팀을 만들 때 실력, 인격도 중요하고, 배경도 중요하다.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, 축복하시고,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것이 있어야 한다. 그것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다.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신 이유이다

**1) 그 언약의 기초요, 핵이요,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다.**

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가? 왜 그렇게도 요셉이, 모세가,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는가? 그 땅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, 영원한 언약되신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이다.

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. 그들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이 된 것이다(히12:1-2).

**2)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할 때, 그 대표였던 갈렙과 웃니엘이 순종했고, 생을 건 것이다.**

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 걸어도 될 만큼 그 분은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신 것이다

그 분의 처절한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(히9:12). 그 분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새생명을 얻었다(고전15:50). 그때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는 흑암 권세가 꺾였다(고전15:25-26)

**①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.** 어떤 문제, 고통, 실패가 다시 와도 승리할 수 있다(고전15:57).

**②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.** 항상 기뻐하고, 쉬지 말고 기도하고(24), 법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기다리라(살전5:16-18).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,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는 것이다.

**③ 이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생을 걸 수 있는 팀을 만들면 된다(롬14:8).** 그때 보좌의 권세가 움직이고,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(마18:19-20). 우리 교회의 3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. 우리 개인과 교회가 계속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, 두려울 것이 없다.

**2.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,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.**

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선택해 보내신 두 번째 이유이다.

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도전한 사람들이었고, 그것을 쓰신 것이다(마6:33).

**① 갈렙은 모든 기득권을 버렸다. 그 옛날 모세가 약속했던 기득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이다(수14:9).**

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도 나를 감추고, 오직 하나님 영광과 뜻이 나타나기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. 자기의 권리와 수고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.

**② 그 기득권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헤브론 땅을 선택하는 일에 쓴 것이다(수14:12)**

가나안 최대의 요새와 같은 헤브론 땅을 선택하고, 거기에 믿음의 도전을 한 것이다.

이것이 전 이스라엘의 귀감이 되고, 참된 헌신의 모델이 되었고, 온 이스라엘은 함께 힘을 얻은 것이다.

**③ 이 갈렙과 웃니엘의 헌신이 미래의 작품을 만든 것이다.**

그들이 선택한 땅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, 그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?

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, 오늘 내가 선택하는 믿음, 오늘 내가 헌신하는 수고가 이런 영원한 작품을 만든다.

**3. 이 언약을 붙잡고,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한 가문과 그 안의 두 사람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.**

많은 사람들이 팀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.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힘으로 큰일을 할 수도 있다.

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한 사람, 한 가정을 통해서도 천을 대신하게 하신다(수23:10, 사60:22)

**1) 지난 주 메시지처럼 가족이 이런 축복된 팀이 되면 된다.**

**① 부부가 하나님이 쓰시는 팀과 동역자가 되고, 가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팀이 되면 된다(미션홀)**

그 가정에서 자란 후대도 팀이 되면서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.

**② 이 전쟁을 끝내고 웃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고, 그때 그 딸 약사가 아버지께 구한 것이 있다(15절)**

그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면서(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는 것), 두 개의 샘물을 요청했다.

그들이 결혼해서 살도록 허락된 땅이 지금의 네게브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.

사막 지대를 받았는데,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면서 그 땅에서 생존하고, 그 땅을 살릴 우물을 구한 것이다.

이들이 정복한 네게브 지역이 지금의 사해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된다.

**2) 교회 안에서 팀을 찾으라.**

**① 허락된 부서, 구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팀이다.** 주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, 거기서 축복과 응답을 찾으라.

**②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시작할 수도 있다.** 먼저 다가가서 언약을 소통하고, 기도 제목을 소통하라(영적 소통) 무엇보다도 서로의 좋은 점을 보는 훈련을 하고, 밀어주는 훈련을 하라(관계를 만들고, 팀을 만드는 방법).

**3)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팀을 찾으라.**

**①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다.** 특히 다민족(구약으로 말하면 이방인) 중에서도 찾으라.

가나안 정복의 두 주인공들이 이방인 출신들이었다. 갈렙과 기생 라합이다. 이 두 사람이 유다지파에 들어간다.

**② 갈렙이 원래 이방인 출신이다. “그니스 사람 갈렙”이라고 했는데(수14:6), 그니스를 애돔 땅으로 보는 것이다.** 이방인이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는데,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, 신실한 믿음으로 자란 것이다(민32:12)

**결론-**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. 그래서 준비된 사람, 준비된 팀의 축복이 중요하다.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축복한다.